의장단 선출 갈등 봉합···시·도의회 본격 활동

광주시의회, 오늘 본회의 열고 상임위원장 선출 전남도의회, 임시회 개회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 등 처리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가 17일 의장 과 상임위원장 선출 과정의 갈등을 봉합하 고, 본회의를 여는 등 본격 행보에 나선

광주시의회는 오는 17일 본회의를 열고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고 연기했던 8대 시 의회 개원식도 할 예정이다. 본회의에는 김동찬 신임 의장 측 지지의원 13명뿐만 아니라 반재신 의원 측 9명도 참석한다.

반재신 측 의원들은 애초 본회의에 참석 하더라도 상임위원장 선출에는 협조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지만, 상임위원장 선출

에 함께하기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

상임위원장 후보로는 행정자치위원장 김익주, 환경복지위원장 박미정, 산업건설 위원장 황현택, 교육문화위원장 김학실 의 원이 단수로 등록했다. 운영위원장은 23일 선거를 통해 선출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 장, 윤리특위원장은 같은 날 각 위원회에 서 뽑기로 했다. 산업건설과 운영, 예결위 원장 등을 비주류 측이 맡는 것으로 알려 졌다.

광주시의회는 지난 9일 개원하고 의장・

부의장을 선출할 예정이었지만 의장단은 물론 상임위원장 자리를 놓고 김동찬·반재 신 의원세력으로 갈려 1주일째 파행을 겪

김동찬 의장은 "더는 의회가 파행으로 치닫게 하지 말자는데 모두 뜻을 같이했고 의정활동을 정상화하기로 했다"며 "의회 본연의 모습으로 시민에 봉사하겠다"고 말

전남도의회는 17일부터 26일까지 10일 간 일정으로 제324회 임시회를 연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개회 첫날인 17일 제1차 본 회의에서 김영록 전남지사의 시정연설과 장석웅 전남교육감의 교육시책 연설을 시 작으로, 10일간의 회기 동안 각 상임위원 회별로 소관 실국 업무보고가 이어진다.

순천 출신 오하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남도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조례 전부개 정조례안'과 도지사가 제출한 '전남도 행 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의 안건도 처리될 예정이다.

이번 회기는 각 상임위원회별 업무보고 및 조례안 심사와 휴회기간을 거쳐 오는 7월 26일 제2차 본회의에서 안건을 최종 의결한 후 10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하게 된다.

이용재 의장은 "집행부 업무 추진 사항 을 면밀히 살피고 도정과 교육행정이 올바 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창의적 대안을 제 시하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전남도 바이오신산업 기획과제 6건 발굴

민선 7기 성장동력 육성 신규 국비사업 반영 노력

전남도는 민선 7기 전남 발전 7대 전 략사업인 바이오신산업을 전남 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6건의 신 규 기획과제를 발굴했다고 16일 밝혔

전남도에 따르면 이날 (재)전남생물 산업진흥원과 함께 '생물산업 고도화 를 위한 기획과제 최종 보고회'를 열었

이날 보고회에서 ▲생물의약·나노바 이오연구센터의 '자연모사 융합기반 약 물 방출 제어시스템 개발'▲생물의약연 구센터의 '줄기세포 및 면역세포치료산 업화 거점 조성사업'▲식품산업연구센 터의 '리얼푸드 단백질 실용화 인프라 구 축'▲해양바이오연구센터의 '해양생물 덴탈케어 소재 글로벌 산업화' ▲나노바 이오연구센터의 '곤충을 활용한 화장품 소재 및 제품 개발' ▲생물방제연구센터 의 '유용 미생물을 이용한 조류독감 예방 사료 개발 및 생산'을 신규 기획과제로 선정했다.

전남도는 지난 2월부터 전남생물산업 진흥원과 바이오・나노・환경 등 각계 전 문가가 참여하는 자문위원회를 거쳐 신 규 사업을 발굴했다.

6건의 기획과제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2019년 국가 공모사업 신청 및 2020년 신규 국비사업에 적극 반영토 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 기획과제가 국가사업에 최종 반영 될 경우 민선7기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바이오 신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전라 남도의 구상이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 이다.

김종갑 전남도 전략산업과장은 "앞으 로 지속적인 전문가 자문과 중앙부처와 의 긴밀한 협의를 거쳐 국가 전략산업으 로 채택되도록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속 도감 있게 선도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

한편, 전남도는 지난해 발굴한 E형 간 염 예방용 백신개발 등 유망과제 8건이 올해 보건복지부 등 정부 공모사업에 선 정돼 국비 75억 원을 수주하는 성과를 거뒀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광주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오늘 시청서 연구포럼 개최

광주시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방향 설 정을 위해 17일 오후 시청 2층 무등홀에서 '광주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연구포럼'을

이번 포럼은 도시의 광주다움을 살리 고, 정의로운 도시, 삶을 풍요롭게 하는 도 시재생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마련한 첫 번째 행사로 전문가를 초빙해 광주 도시의 현 모습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현실을 분 석할 예정이다.

노경수 광주대 교수가 '광주 도시재생 뉴딜사업 로드맵'을, 류영국 지오시티 (주) 류영국 대표가 '광주시 주택현황, 도 시 및 주거환경정비와 도시재생사업 연계 방안'을, 강신겸 전남대 교수가 '문화적 도 시재생을 통한 관광 활성화 방안'을 주제 로 발표한다.

이어지는 토론회는 조선대 조용준 명예 교수가 좌장을 맡고 김재철 광주전남연구 원 박사, 남승진 (주)건설문화교육연구원 대표, 안평환 도시재생공동체센터 대표, 이상준 동신대 교수가 참여한다.

시는 이번 포럼에서 분석된 내용을 토대 로 향후 포럼을 추가 개최해 전문가와 시 민의 의견을 반영한 광주형 도시재생 뉴딜 사업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발굴해 2019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에 참여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2017년 도시재생뉴딜 시범 사업 대상으로 남구 양림동 등 3곳이 선정 돼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8년 뉴딜 사업으로 이달 초 국토교통부에 '광주역 경제기반형' 등 10곳의 사업계획서를 신청

2018년 뉴딜사업은 현장평가 등을 거쳐 오는 8월 말 선정 여부가 결정된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토마토 농장서 귀농귀촌 활성화 간담회

안내로 자동화온실을 둘러보고 있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16일 오전 영암군 서호면 촌스러운 토마토 농장에서 열린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귀농농가 함형국 농장 대표

"광주도시철도 2호선 시민참여형 숙의 조사를"

사람중심 미래교통 시민모임, 공론화 제안서 제출

광주지역 일부 시민단체가 광주도시철 도 2호선 건립과 관련, 공론화 방식으로 시 민참여형 숙의 조사를 제안했다.

참여한 '사람중심 미래교통 시민모임'은 광주시청 민원실에 도시철도 2호선 공론 화 제안서를 제출했다.

시민모임은 대표성을 지닌 각계 인물로 구성한 시민숙위조사위원회가 시민참여단 을 꾸린 뒤 이들에게 충분한 자료와 정보 를 제공하고, 학습·분임토의·종합토론 등 을 거쳐 최종 권고안을 만드는 방식을 제

시민참여단은 나이, 성별, 권역별 무작 위 표본추출로 250여명 규모로 꾸릴 계획 이다. 최종 권고안이 나오기까지는 준비 16일 광주시민단체협의회 등의 단체가 기간을 포함해 약 5개월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들은 비용은 5억원에서 7억원 규모로 추산했다.

광주시는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방식에 대한 논란이 확산하자 시민단체 의견을 반 영하기로 하고, 시민사회단체에 공론화 방 식 제안을 요청했다. 시민단체가 제안한 시민참여형 숙의 조사는 문재인 정부가 신 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재개 문제를 놓고 시행한 방식이다.

사람중심 미래교통 시민모임 관계자는 "숙의민주주의의 새로운 틀을 제시했고, 광주시도 부담없이 시민 사회의 요구를 담 아낼 수 있을 것"이라면서 "5개월은 시민 의 이해와 이견을 조율하는 최소한의 시간 이며, 숙의 조사에 필요한 예산도 신고리 의 경우 간접비용이 많았고 광주의 경우에 는 많게는 7억원가량으로 추정된다"고 설

또 "도시철도2호선 관련 행정 행위 진행 은잘못된 것이며, 신고리 5.6호기 처럼 입 찰 등 도시철도2호선 관련 행정 행위 진행 을 중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여수 죽림지구 택지개발 사업 재개

땅값 상승 사업비 1300억 증가

지가 상승 등 사업환경 변화로 주춤했 던 여수 죽림1지구 택지개발 사업이 타 당성 재검토 과정을 통과해 다시 추진된

16일 전남개발공사에 따르면 지방공 기업평가원은 최근 여수 죽림1지구도시 개발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에서 '적 정' 의견을 냈다.

사업 대상지는 개발 호재로 공시지가 가 15%가량, 시가로는 몇 배씩 뛰어 사 업비가 크게 늘었다.

개발공사는 사업비가 10% 이상 증가 하면 지방공기업평가원으로부터 검토를 다시 받아야 하는 규정을 고려해 타당성 검토를 의뢰했다.

검토 결과, 타당성이 검증된 데다가 사 업 예정지에 포함된 산림에 대해 보존 의 견을 낸 영산강유역환경청과도 대상지 를 보존하기로 혐의를 마쳤다고 개발공 사는 설명했다.

다만, 지가 변동으로 사업비는 애초 2866억원에서 1289억원 늘어난 4155억 원으로 증가했다.

반대로 여수시 소라면 죽림리 일원 약 100만㎡에 6150가구 규모 택지를 조성 하기로 한 사업 규모는 97만9000㎡, 5776가구로 줄었다.

개발공사는 오는 9월 사업인정 고시를 거쳐 10월 보상 업무에 들어가기로 했

애초 2021년 완공을 목표로 했지만, 타당성 재검토 등으로 추진 일정이 지연 된 탓에 2022년으로 시기를 미뤘다.

절차상 걸림돌은 해소됐지만, 사업비 증액이 분양가 상승, 분양률 저조 등 부 작용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전남개발공사 관계자는 "죽림지구는 여수에서 얼마 남지 않은 대규모 택지개 발 지역인 데다가 아파트 등 순환 주기에 접어든 지역 수요를 고려하면 분양은 잘 될 것"이라며 "공익과 수익을 모두 챙겨 야 하는 지방공기업의 모순된 숙명이 있 지만, 택지 사업으로 수익을 남겨 공익사 업에 투자하는 모델이 되도록 노력하겠 다"고 말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100년 신문 향한 정통지

생 광주일보

한결같은 믿음, 좋은 시력으로 보답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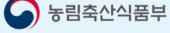
- 2013년 3D스마일수술 도입
- 스마일장비 2대 운영
- Best Skilled 닥터 선정
- 레이저 다초점 노안, 백내장 교정술 시행

●● 신세계안과 _{옛,밝은광주안과}



1566-9988

농촌의 새로운 희망



(4) 에너지관리공단

ඊ농협

농촌 태양광 농업진흥구역 규제완화

대통령령 제28838호, 5년거치 10년상환, 년 1.75% 가능

90% 융자 지원 사업 선착순 접수



연금 발전소 태양광이 효자!!

> ▶ 정부에서 보장하는 안정적 투자 ▶200KW설치시 연금처럼 월 500만원 꼬박꼬박

(25년동안 년평균 6,000만원)

연락주시면 방문하여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믿음 · 신뢰

(주)해가온 개발

전국대표 1588-1543 이길영 010-3645-1479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로 166 해가온빌딩 1층